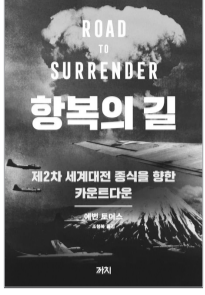


#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을 향한 카운트다운

## 항복의 길

에번 토머스 지음, 조행복 옮김



“히로시마 시 전체가 폭탄 한기에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1945년 8월 7일 새벽 일본 육군참모차장은 한 문장으로 된 급전을 받는다. 하루 전날 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 티니안 섬에서 출격해 B-29 폭격기(에놀라 게이)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리틀 보이’를 투하한 것이다. 투하 43초 뒤에 터진 인류 최초의 원폭으로 인해 7만 명이 즉사했다.

“만일 지금도 그들(일본정부가) 우리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본 적 없는 파멸의 비가 공중에서 쏟아지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직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연설을 했다. 9일에는 같은 비행장에서 출격해 또 다른 B-29 폭격기(복스카)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팻맨’을 투하했다. 본래 표적도시(고쿠라)는 연기와 안개 때문에 참상을 모면할 수 있었다. 가까스로 오기나와 섬으로 귀환한 폭격기의 연료탱크에는 불과 130 L의 휘발유만이 남아 있었다. 13일 밤 B-29 7기가 도쿄 황궁 등지에 폭탄대신 항복 권유 전단을 살포했다. 원폭을 투하하는 미국의 정책자나 군부 수뇌부, 파국에 직면한 일본 전황과 군부 등 모두 같듯하고 결단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작가이자 기자인 에번 토머스가 쓴 ‘항복의 길’은 미국 전쟁부 장관 헨리 스티븐슨과 태평양전략폭격사령부 수장 칼 스피츠, 일본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를 중심으로 핵폭탄 투하 결정과 일본의 항복까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향한 1945년 3월부터 8월 사이 긴박했던 시간을 생생하게 살려낸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 <미국 국립항공우주박물관 홈페이지>

4월 말 미국은 원폭 표적지 ‘인구밀집 지역의 반경 약 5km 이하 대도시’ 여야 한다고 결정한다. 변호사 출신인 미국 전쟁부 장관 헨리 스티븐슨은 나라문화 중심지인 교토 폭격을 반대한다. 부계 조상이 조선에 뿌리를 둔 일본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는 옥새(玉璽)를 주장하는 일본 군부와 다른 입장이었다. 최고 전쟁지도회의 6명 가운데 일본의 항복을 바란 유일한 민간인이었다. 두 발의 원폭 투하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부는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하며 쿠데타를 모의한다. 마침내 전황은 “이 전쟁을 계속하면 그 결과는 조국의 파멸과 세상의 더 많은 출혈과 냉혹함뿐이라고 결론내렸소”라고 말하며 항복을 결심한다.

전범재판을 받고 수감됐던 도고가 1950년 7월 면회 온 가족에게 남긴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일본의 미래는 영원하겠지만, 매우 끔찍한 이 전쟁이 끝나 조국의 고통이 사라지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다. 이로써 나의 일생의 과업은 달성되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중요하지 않다.”

저자는 1945년 미국과 일본의 극적인 전개과정을 현장감 넘치게 묘사하며 이야기를 풀어낸다. 다큐 영화를 보듯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생생하다.

1945년 8월의 마지막 전황을 독자들은 결코 무심히 넘길 수 없다. 자주적인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은 뼈아픈 역사이기 때문이다. 올해 79주년 광복절을 맞았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광복’과 ‘건국’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태평양 전쟁 말기 역사적 전개과정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이유다. 신간 ‘항복의 길’은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는 현 시국에 원폭같은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가치·2만2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종의 소멸=지구에 있는 800만 생물종 가운데 대략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을 저해하고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불러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 중 바이오매스보다 인간이 생산한 아스팔트나 플라스틱, 유리, 종이 등 자연 손실이 많다는 사실은 큰 위협 요소다. 가공 재료들은 멸종을 가속한다. 사회가 주목해 오던 개별 동식물의 멸종 위기 뿐만 아니라, 근본적 원인이 되는 심층적 요소를 살펴본다. <에코리브르·1만8000원>

▲정 대위의 군사 법률 이야기=군대에서 휘말릴 수 있는 형사사건 등 법률 이야기를 알려준다. 군복무 중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경계근무와 초병의 의무사항, 권한을 살펴보고 상관에게 저지르는 대상관 범죄 유형을 분석한다. 분대장이 아닌 용사도 직무관련 지식을 할 수 있는 상황,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복잡한 케이스를 통해 군복무 장병을 비롯해 복무장병의 가족들이 알면 좋을 정보들을 알려준다. <다들책방·1만7000원>

▲명상맛집=세계 최고 명상가들이 손꼽은 25가지 명상 레시피를 담았다. 견포도 먹기 명상과 같은 낯선 방법들부터 온라인 명상앱들, 국내 명상센터 등 온오프라인 명상 ‘맛집’들을 소개한다. 종교적 자기 수행의 방법론을 넘어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피로감을 덜어내는 매개로



서 명상을 조명한다. 나아가 초심자가 시작하기 좋은 시그니처 명상법부터 탈문화 명상, 대중적 명상 등 시도해 볼 만한 명상법을 언급한다. <불광출판사·2만원>

▲중국필패=중국은 국가주식 임계점이 폐지되며 시진핑 1인 사실상 독재체제로 돌입했다. 권위주의적 평권으로 회귀하고 있는 이들은 새로운 국가 확장 공식을 추구한다. 근간에 자리 잡고 있는 방법론은 중국의 국가정책과 인식론의 바탕이 되어 온 동양의 과거제다. 이른바 EAST 모델을 통해 국가 안정을 추구하는 데커니즘은 독재와 맞물려 안정화에 기여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공식이 유효할지 분석한다. <생각의힘·3만2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독립만세버스=광복절을 맞아 1942년 그때로 은혜, 은산이가 시간여행을 한다. 일제 강점기의 생활상으로 인해 참새 개명을 해야만 하고, 매 순간 순사를 두려워하며 생활 전선에 나서야만 한다. 13세, 11세 아이들의 눈으로 본 그 시절 조선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다. 이들은 희망을 품고 ‘독립만세버스’ 지도를 그리며 국가 주권을 되찾는다. <논장·1만5000원>

▲조선, 무엇이든 법대로=법치국가 조선은 모든 일들이 법에 따라 움직였다. 석삼이 가족은 호랑이가죽, 전복 등을 세금으로 냈고 동래 수령은 군대에 오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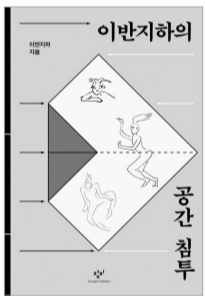
사람이 늘어 걱정이지만 이는 모두 법에 따른 현상이다. 그러나 점차 축보를 사서 양반이 되는 상인들이 나타나고, 조선의 근간이던 법치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마음유·1만5000원>

▲바람길 37번지의 기적=마법이 없고 믿어야만 살 수 있는 우편배달원 마루에게 어느 날 당찬 소녀 아기가 찾아온다. 반드시 찾고 싶은 바람길 37번지라는 주소가 적힌 의문의 편지도 함께 도착한다. 둘은 무자비한 바람에 휩싸여 구름에서 식물이 자라는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마법 같은 모험기가 펼쳐진다. <파란자전거·1만3900원>

# 퀴어 예술가가 대면한 상실의 공간들을 탐구하다

## 이반지하의 공간 침투

이반지하 지음



흔히 쓰는 ‘우프다’는 말을 ‘제대로’ 느낀 책이다. 요즘의 글쓰기에서 유머는 빠질 수 없는 요소라 ‘재미있는’ 책은 많지만, 이처럼 웃기면서도 쓸쓸한 책은 오랜만이다. 무엇보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실들에 대해 자주 고개를 가우뚱하게 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책이다.

작가 ‘이반지하’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현대미술가이자 편집자이자 퀴어이다. 필명 이반지하는 퀴어의 의미를 가진 한국어 ‘이반’과 작가의 위태로운 생활공간이자 작업공간이었던 ‘반지하’를 결합해 만들었다. 책 날개에는 그를 ‘가부장제와 퀴어성, 젠더와 매체의 경계를 가지고 놀며 작업하는 다매체 예술가’로 소개하고 있다.

‘이웃집 퀴어 이반지하’ 등에 이은 신간 ‘이반지하의 공간 침투’는 작가가 살아내고, 살아갈 다양한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도서관, 야구장, 프랜차이즈 카페, 병동, 여자 화장실, 유튜브 속, 옷장 앞 등 책에 등장하는 여러 공간은 이반지하와 만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쏟아내고, 그 이야기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이어진다. 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간 빈곤과 차별의 세계에 맞서 자신만의 공간을 창출해내고, 더불어 공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안을 전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여겨지는 공공도서관도 그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공간이었다. 울산 지역 도서관 강의는 퀴어라는 이유로 취소됐다. 우여곡절 끝에 300명이 시위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퀴어, 젠더, 동성애’를 빼고 강연하는 조건으로 행사를 치러야했다. 그가 한결 같이 뻔하며 지겹도록 쾌적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발길을 옮기는 이유는 “이곳 저곳 얻어 터져버린 마음을 위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기대는 곳”이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에서는 “그가 하는 말은 들어봄

직하다, 내 생각과 다르든, 전혀 틀리든 그가 하는 이야기에 알맹이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던 가수 신혜철을 기억하며 신뢰와 영웅에 대해 떠올려본다. 그는 또 24시간 불을 밝혀야 하는 편의점의 역할을 외면한 채서 있는 목포항의 불 꺼진 편의점을 바라보며 “영원히, 완전히 그렇기만 한 것은 세상에 없겠다”고, “여기서 이랬으니 저기서도 으레 그럴 것이라는 법은 세상에 없는 법”이라고 말한다.

그밖에 “사회적 동물이 평소 잘 제어하고 있던 내면의 무언가를 거침없이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기능”을 하는 야구장이라는 공간과 늘 다녔던 동성 결혼식이 아닌 일반적인 헤더로 결혼식에서 사회를 보며 떠올린 생각들도 풀어냈다.

호텔에서 주 6일 근무하며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떼어낸 상황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마음으로 의지해 온 서점식 작가를 만난 이야기나 철수를 앞둔 전시장에서 기억없는 다음 전시를 떠올리는 장면에서는 고단한 예술가의 모습도 본다. <창비·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